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•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전략실 김종운 실장(044-300-0330), 김아람 주임(044-300-0334)

•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00-0720), 정민규 책임(044-300-0721)

TIPA, 하나은행과 신년 맞이 지역상생활동 나서!

-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5종의 생활필수품이 담긴 행복상자 꾸러미 200개
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전달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 이재홍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흑묘년 새해를 맞아, 지난 1월 25일(수) 세종 본원에서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행복상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.
- 이번 활동에는 하나은행 이성진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였으며, 생활필수품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된 물품꾸러미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었다.
- 이날 행사에서 TIPA와 하나은행 임직원 29명은 행복상자를 조립하고, 하나은행과 함께 준비한 즉석식품, 라면, 겨울담요 등 15종의 생활필수품을 담아 지역 취약계층의 남은 겨울나기를 위한 행복상자 200개를 완성하였다.
- 이날 완성된 200개의 행복상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이웃들, 푸드뱅크사업 등을 운영하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되었으며, 세종시 곳곳 이웃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.
- 이재홍 원장은 “명절 전까지 코로나 재확산과 이른 한파 등으로 어렵게 시작한 새해였지만, TIPA에 주어진 책임감을 다해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R&D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상생가치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”며 소감을 전했다.

-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으로, 작년 TIPA와 함께한 ESG 활동 이후 지속적인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23년 새해에도 TIPA와 마음을 모은 활동을 함께 하였다.

<사진 설명>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 이재홍 원장(첫째 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, 파란색 조끼 착용)이 TIPA 및 하나은행 임직원과 행복상자 나눔행사를 갖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.